

생물 도감

식물군

동물군

분해자 급

눈

작은 추진기를 통해 공중에 부양하는 드론과 비슷한 형태의 기계입니다.
몸체 전방에 부착된 큰 눈이 주 탐지기관이며, 다른 탐지기관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식물등에 눈에서부터 작은 레이저를 발사해 스크랩으로 전환하고,
작은 역장을 통해 자신 몸의 연료탱크로 옮깁니다.
어느 지역이나 있지만 평야에 자주 보입니다.

공

동그란 구 형태를 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크기는 눈과 비슷한 크기의 작은 개체부터, 사람과 비슷할 정도의 큰 개체까지
여러가지 크기가 발견되었지만, 주로 굴러다니는 모습만 포착되었습니다.
몸체 하부에 위치한 구멍으로 죽은 기계의 잔해를 회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런 방식으로 스크랩을 모읍니다.

생산자 급

소형 생산자

날개

몸통 양측에 달린 커다란 팬을 통해 이동하고,
잠자리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몸체 하부에 장치된 스캔 장치가 탐지기관을 담당합니다.
박쥐와 생활방식이 비슷해, 주로 작은 열매를 통채로 몸통에 담아 스크랩으로 전환시킵니다.
주로 동굴에 서식합니다.

열매게

다리가 4개 달린 소형 기계입니다.
평소에는 앞쪽에서 튀어나온 두개의 눈으로 주변을 감지하며,
먹이를 먹을때는 주로 위쪽을 덮쳐 몸통 아래의 입으로 먹이를 담아 스크랩으로 전환시킵니다.
주로 강가에 서식합니다.

하늘 가오리

가로로 긴 몸체와 그를 따라가는 꼬리를 가진 기계입니다.
주로 하늘을 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땅으로 자주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잦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아,
바람으로 에너지를 얻는 기관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 생산자

값아먹는 자

기린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족보행 드론입니다.
머리 부분에 달린 기관으로 직접 큰 버섯을 값아먹으면서 스크랩으로 전환시킵니다.

버섯게

갑각류 게들과 비슷하게 집게가 있고
다리가 6개 있는 중형 기계입니다.
주로 강가에서 서식하며, 자신보다 작은 크기의 버섯을 집게를 사용해서
먹으면서 스크랩을 생산합니다.

대형 생산자